

사노피 파스퇴르 메낙트라주, 파고다 교육그룹과 함께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 위한 ‘헬씨-인싸 캠페인’ 진행

- *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시기, 대학생 및 예비 유학생 대상으로 수막구균성 질환의 위험성과 예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동 기획
- * 7월 1일부터 파고다 어학원 멀티비전 및 주요 대학 캠퍼스, 유튜브 채널 통해 캠페인 영상 송출 예정

서울 - 2020년 7월 1일 - 세계최대규모 백신기업 사노피 파스퇴르(주) (대표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Baptiste de Clarens,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의 4가 수막구균 단백질접합 백신 ‘메낙트라주(Menactra)’는 7월 1일부터 국내 종합 어학교육기관 파고다 교육그룹(대표이사 고루다)과 함께 예비 유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을 위한 ‘헬씨-인싸(healthy-insider)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헬씨-인싸 캠페인’은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을 통해 단체생활에서 건강한(healthy) 인싸(인싸이더(insider)의 줄임말)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막구균성 질환은 수막구균에 의한 뇌수막염과 패혈증을 주로 일으키는 중증 감염질환으로, 패혈증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¹ 수막구균 보균자 또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거나 식기 공유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¹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가정, 파티 등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서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²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시기에, 수막구균성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대학생 및 예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막구균성 질환 위험성과 예방이 필요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파고다어학원의 아이엘츠(IELTS) 과목 담당 소니(SONY) 박, 설규미 대표 강사가 건강한 유학생들을 위한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이 필요한 경우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선보인다. 캠페인 영상은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유학 전 영어 준비와 함께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이 필요한 지 체크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캠페인 영상과 함께 수막구균성 질환에 대한 리플릿과 카드뉴스 등도 제작해 파고다어학원 등록데스크 및 파고다어학원 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밥티스트 드 클라랑스 대표는 “수막구균성 질환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많은 대학에서 기숙사 입소 시 학생들에게 수막구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정도로^{3,4,5} 주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감염병이며 국내에서는 질환 및 예방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이번 캠페인은 단체생활을 하는 대학생 및 예비 유학생들에게 수막구균성 질환의 위험성과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필요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내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파고다 교육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다시 유학, 어학연수, 해외취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한 유학생활을 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파고다 교육그룹은 앞으로도 수강생들의 교육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헬씨-인싸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속 진행된다. 캠페인 영상은 7월 파고다 강남학원 내 멀티비전과 파고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0월부터는 전국의 30여개 대학 캠퍼스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파고다 교육그룹과 ‘헬씨-인싸 캠페인’을 진행하는 메낙트라주는 2005년 세계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⁶ 사노피 파스퇴르의 4가 수막구균 단백질접합 백신으로 수막구균성 감염증의 주요 혈청형 4가지(A, C, W, Y)를 예방한다.⁷ 미국에서 제조되며⁸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허가됐다.⁹ 아시아에서는 혈청형 A에 의한 수막구균성 질환이 많이 보고되었으며,¹⁰ 메낙트라주는 4가 수막구균 단백질접합 백신 중 생후 9~23개월에서 국내 유일 혈청형 A에 대한 효능효과를 입증 받았다.¹¹ 생후 24개월 이상 소아부터 만 55세 성인까지는 1회 접종하며, 생후 9~23개월 영유아의 경우 3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⁷

한편, 지난 6월 사노피 파스퇴르가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국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수막구균성 질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4명 중 3명은 수막구균성 질환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질환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기숙사 거주 및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대학생 578명 중 수막구균성 질환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3%(17명)에 불과해 대학생들에게 수막구균성 질환 및 예방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

사진

[사노피 파스퇴르 메낙트라와 파고다 교육그룹의 수막구균성 질환 예방 캠페인 영상 캡처본]



사노피 파스퇴르에 대하여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 그룹의 백신 사업부문으로 110년 이상의 오랜 백신 개발 역사를 지닌 세계 최대규모의 백신전문 기업이다. 사노피 파스퇴르 한국법인인 사노피 파스퇴르(주)는 1989년 국내 최초로 독감 원액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주사형 소아마비 백신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 독감 백신(완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뇌수막염 백신, 및 A형 간염 백신, 4가 수막구균 다당류-DT 단백질접합 백신, 국내 최초의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국내 최초의 DTaP-IPV 혼합백신, 국내 최초의 DTaP-IPV/Hib 혼합백신, 국내 최초의 베로세포 일본뇌염 생백신 등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About Sanofi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여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

¹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제5판 Chapter25.수막구균(2017)

² 이환중.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es*) 감염. 소아감염 제 10 권 제 1 호. 2003

³ America College Health Association.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Prematriculation Immunizations

⁴ Ottawa University. Meningitis Policy and Form

⁵ New public health bulletin, Sep-Oct, 2010. <http://www.publish.csiro.au/>

⁶ FDA Homepage. Vaccine,Blood&Biologics_Vaccines_Approved Products_Menactra. January 14, 2005 Approval Letter. Available at: <http://wayback.archive-it.org/7993/20170723032519/https://www.fda.gov/BiologicsBloodVaccines/Vaccines/ApprovedProducts/ucm131181.htm> [last accessed date: May. 8, 2019]

⁷ KIMS 의약정보센터_메낙트라

⁸ 메낙트라주 국내 제품설명서

⁹ Sanofi Pasteur. internal data

¹⁰ A. Vyse and others. Meningococcal disease in Asia: an under-recognized public health burden. *Epidemiol. Infect.* (2011), 139, 967-985

¹¹ 약학정보원 국내 허가된 '수막구균 백신' 검색 as of April 11, 2019